

### 3장 여호와와 이름 계시하면서 구원을 약속하심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탄식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대업을 맡기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 주셨다. 여호와와 성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친히 이루신다는 뜻으로 알려 주신 것인데, 구속 역사의 진행과 함께 그 이름의 풍성한 뜻이 더 드러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 장면에는 ‘보다’ ‘나타나다’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자’ 모세가 ‘보았고’(3:2),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고’ 갔다가 ‘보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며(3:3, 4, 6),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학대당함을 ‘보셨다’(3:7, 9).

#### 1.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심 (3:1-10)

##### 1) 모세를 부르심 (3:1-5)

모세는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면서 살았다. 그는 이방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양을 치고 살고 있었다. 그는 풀을 찾아 사막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호렙 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는 않는 것을 보았다. 매우 신기한 불이어서 그는 “이 큰 광경”을 보겠다고 그곳으로 갔다. 그런데 모세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는 그것이 여호와를 나타낸다는 사실이었다.

모세가 불꽃 가까이 갔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두 번 부르셨다. 모세가 가까이 오자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그 자리에 서도록 하셨다. 불에 대한 호기심에서 가까이 접근하는 모세를 그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어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하고 명령하셨다.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후에 성막의 규례를 주신 후에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출 29:43) 하고 말씀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일은 사람으로서 행하는 일을 멈춘다는 의미가 있다. 여호수아 5장에 비슷한 기록이 나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여호와와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수 5:15) 하고 말씀하셨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이 여호수아의 군사 작전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수행하시는 일임을 알려 주셨다. 여호수아는 신을 벗고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었다.

##### 2) 모세를 보내심 (3:6-10)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말은 독자의 관심을 하나님에게 향하게 한다. 6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네 번 강조하여 사용한다. 2:24-25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네 가지로 서술하였는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그분의 음성으로 들려준다.

7-8절에서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 내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여섯 동사로 표현하면서 그분이 행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여섯 가지 동사로 표현한 것은 일곱째의 완성이 가까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의 확정 아래에 있는 사람을 향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 번이나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임을 계시하시면서 애굽에서 고통을 받는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가까이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 후에 젃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2. 모세의 두 차례 거절과 여호와와 이름 (3:11-14)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그 복음의 심부름꾼으로 부르셨으나 그는 거절한다. 3-4장의 기록대로는 모세가 무려 다섯 번이나 거절하였다(3:11, 13; 4:1, 10, 13). 처음 네 번은 이유를 제시했는데, 두 번은 자신의 무자격함을 이야기하였고(3:11; 4:10), 두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3:13; 4:1).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네 번이나 충분히 대답하여 주셨다. 그렇지만 모세는 여전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4:13) 하면서 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진노하셨다(4:14). 40년 전에는 구원자로 자처하고 나섰던 모세가 이제는 뒤로 물러서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이전 실패의 경험이 있는 모세는 “내가 누구관대” 하면서 뒤로 물러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대답하면서 앞으로 나오셨다. 대화를 보면 ‘나’라는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다. 모세는 “내가 누구관대”(who am I) 하면서 뒤로 물러섰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나’를 이야기하면서 뒤로 물러섰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나오셨다. 즉, 출애굽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에호예 임마흐’(I AM with you)이다. 구원의 일을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면서 모세를 사용하실 뜻을 보여 주셨다. 모세는 신을 벗었고 그 일을 행하실 분은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이것이 모세를 보낸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증거’라는 말은 ‘표적’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관대 애굽에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묻는 모세에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낼 뿐 아니라 지금 가시떨기 불꽃 앞에 서 있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시내산에서 불과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은 - ‘에호예’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에 더 분명히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삼는 것은 현재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예배할 일을 들어서 현재 모세를 보내는 일의 표적으로 삼으신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현재 모세를 보내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예배할 미래의 행동에 의해서 확정된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논법이다.

그렇지만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리는 것이 충분한 표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것이라고 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14절에서는 ‘에호예’라는 말을 세 번 반복하여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호예 아쉐르 에호예]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에호예]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3:14). 개역한글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말은 ‘에호예 아쉐르 에호예’라는 말이고 ‘스스로 있는 자’는 ‘에호예’라는 한 단어를 의역(意譯)한 말이다.

‘에호예 아쉐르 에호예’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왔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모세의 핑계에 대답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에서는 ‘내가 한 다[에호예]. 정말로[아쉐르] 내가 한 다[에호예]’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모세가 ‘내가 누구관대’ 하면서 뒤로 물러설 때 12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에호예 임마흐]라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셨다.

### 3.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보내심 (3:15-24)

#### 1) 여호와의 이름 (3:15)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한 후에 15절에서는 그것을 이름으로 주셨다. 14절에서 ‘에호예’(개역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됨)가 모세를 보냈다고 이야기하였고, 15절에서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여호와라”고 하여서 ‘에호예’ 혹은 ‘에호예 아쉐르 에호예’는 ‘여호와’라고 알려 주셨다. ‘여호와’라는 말은 ‘이호예’(HE IS)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다. 즉, I AM이라는 말을 3인칭으로 바꾸어서 HE IS로 표현하고, 여기에서부터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주신 것이다.

또한 그 이름을 주시면서 여호와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동일시하였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과 여호와는 같은 분이고, 조상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이것을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임을 알려 주신 것이다.

요약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언약하신 대로 그분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을 표현한 칭호이다. 여호와라는 명사에는 동사적인 성격이 담겨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동적인 분이시다.

## 2) 장로와 함께 바로에게 가라 (3:16-18)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주시면서 장로들을 모아서 그가 들은 대로 이야기하라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려 주셨다. 장로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러 한다고 이야기하면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으리라고 하셨다.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를 섬기는 데서 나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출애굽이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 3) 이적에 대한 예고와 성취의 약속 (3:19-22)

노예 노동에 의존해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낮게 보고 또한 히브리인의 하나님도 경시하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다. 그래서 강한 손으로 친 다음에야 그들을 내어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 가지 재앙으로 친 다음에야 비로소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다(7:14-12:30).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여인과 아이들도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1:2-3; 12:35-36).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이지만(창 15:14; 시 105:37),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노예로서 복역한 것에 대한 값을 받는 것이다(참조. 신 15:13 이하). 부녀자와 아이들도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값으로 금품을 받고 나왔다. 둘째는 전쟁의 이미지다. 여호와께서 전사(戰士)로서 애굽을 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에 대해서 승리자로서 그들의 물품을 취하여서 나온 것이다. 여인까지 노략질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한다. 가장 약한 여자라도 애굽의 가장 좋은 것을 갖고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몰래 도망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 목상과 실천:

#### 가시떨기에서 계시하시는 여호와와 출애굽의 목적

##### 1. 가시떨기에서 계시하심

모세는 불이 붙은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보았다. 그는 “이 큰 광경”을 보겠다고 그곳으로 갔다. 그러나 아직 모세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것이 여호와를 나타낸다는 사실이었다.

모세가 본 불은 나무에서 에너지를 얻는 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무가 타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

재를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불이었다. 형태가 없으나 빛과 열이 있는 불인 신비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을 이용하여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셨다.

여호와께서 여기에서 불로 나타나신 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불은 이전에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고 언약의 성취를 예기(豫期)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고생하다가 400년 후에 약속의 땅에 올 것을 말씀하실 때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로 나타나서 언약을 맺으셨다(창 15:17). 따라서 여호와께서 불꽃으로 나타난 것은 연기 나는 풀무와 횃불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제 이루실 것을 상기시킨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실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13:21)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실 것을 예기하게 한다(19:18; 신 4:12).

둘째, 불은 하나님의 엄위를 상징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밝히고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가진 천사가 지키게 하셨다(창 3:24). 여호와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는데 이것은 언약을 어기면 소멸하는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신 4:23-24). 하나님의 불은 죄는 소멸하시고 더러운 것은 정결케 하신다(말 3:2).

셋째, 불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한다. 소멸하는 불이신 여호와께서 가시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셨다. 여호와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내시지 않고 가시떨기나무에서 나타내셔서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여호와 앞에 세워 두셨다. 신명기 33장에서는 열두 지파에 대한 복을 선언하면서 요셉 지파에 대해 말할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신 33:16). 후에 시내산에 나타나셨으나 그 산을 태우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려 주시는 데에서도 여호와의 사랑을 본다. 여호와의 엄위와 함께 크신 사랑을 보는 것이다.

## 2. 출애굽의 목적

여호와께서는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를 섬기는 데서 나아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출애굽이 단지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반복하여 말씀하신다.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 모세와 바로의 대화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음을 우리는 뒤에 기록된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참조 8:25, 28; 10:11, 24).

모세가 삼일 길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호렙산까지는 삼일보다 더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광야의 다른 곳을 마음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라 추정된다. 이것은 낮은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바로의 완고함을 분명히 드러내려는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삼일 길인가 아니면 삼십일 길인가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이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삼일 길이라고 작은 규모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의 완고함을 지적해 내기에 좋은 수단이 되는 셈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처음부터 호렙산에서 드리는 것이었다(3:12).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바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다. ‘히브리인’은 노예민족이고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는 무시했을 것이다. 바로는 노예 계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애굽의 신들에 비하면 아무런 힘도 없다고 생각하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무시할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이분이 자기 민족의 하나님임을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 3.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는 과정에서 여호와라는 이

름을 주셨다. “내가 누구관대”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에호예 임마 흐] 하면서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보내신 분의 이름을 물을 것이라고 하자 ‘에호예 아쉬르 에호예’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신 것과 같다. ‘에호예 아쉬르 에호예’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알려 주셨다.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자기에게 간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면서 자기 백성의 마음을 그분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그분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 경배하게 하신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성취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 전파의 사명을 맡겨 주셨다. 교회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것처럼 어렵게 보이는 시기를 지나고 있으나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호와로서 그분의 교회와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처럼 발에서 신을 벗고 그분의 뒤를 따라서 행한다. 그분께 경배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 쟁과 쫓이 흐르는 땅으로 상징된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 3장 익힘 문제

1. 1) 바르의 낮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간 모세는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1점)
- 2)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1점)
- 3)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5:15에서는 어떠한 맥락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 4)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조상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스돗과 광대한 땅, 적과 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 말씀에서 여호위를 주어로 하는 동사를 6개 찾아보십시오. (7, 8점)
- 5)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르에게 보내어 하시고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10점)
2. 1)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들은 모세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 2)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증거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2점)
- 3)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모세는 무슨 핑계를 댈니까? (13점)
- 4) 모세의 핑계를 듣고서 여호와께서 14절에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구절과 관계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3.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신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성호는 무엇입니까? (15점)
- 2)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말하라고 하셨습니까? (16점)
- 3) 모세는 바르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양아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8점)
- 4) 하나님께서는 바르가 어떤 일이 있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19, 20점)
- 5)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여인과 아이들까지도 무엇을 취할 것입니까? (21, 22점)
4. 여호와라는 이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 주신 데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은 무엇입니까?